

전북도-중국 강소성 우호교류 확대

스타이핑 성장 방문 협의서 체결...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협력 키로

1,170조의 경제규모를 갖추며 중국 내 가장 부유한 성 중 하나로 꼽히는 강소성과 전북도와의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마련돼 향후 협력에 의한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중국 강소성의 스타이핑 성장이 28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전북도를 공식 방문해 전북도-강소성 간의 우호교류확대를 위한 협의서를 체결하는 등 양 지역의 우호를 다지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스타이핑 성장이 지난 2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우리 도와의 만남은 7년만이다. 앞서 도는 강소성과 1994년 자매결연

을 맺은 이후 연평균 12회, 112명에 달하는 교류(올해까지 총 268회, 2,454명)를 하면서 상호우의와 신뢰를 쌓아 왔다. 22년 전 강소성이 전북과 자매 결연을 맺을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 번방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낙후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경제규모면에서 중국 제2의 성으로 성장했다.

이번 방문에서 스타이핑 성장은 중국경제 제2의 성을 이끄는 수장답게 한·중 경제개발의 중심지인 새만금을 가장 먼저 찾았다. 새만금을 둘러본 스타이핑 성장은 "전북의 모습이 강소성과 같아 평야도 있고 좋은 날씨로 인해 환영을 받은 것 같다"면서 "오늘 강소성과 전북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내부 용지가 55% 땅으로 드러나 이곳에서 세계 캠퍼리 대회 개최도 추진 중"이라며 "중국 청소년 들도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많이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스타이핑 성장은 이날 도와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한·중 경제개발의 중심지인 새만금을 가장 먼저 찾았다. 새만금을 둘러본 스타이핑 성장은 "전북의 모습이 강소성과 같아 평야도 있고 좋은 날씨로 인해 환영을 받은 것 같다"면서 "오늘 강소성과 전북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도는 강소성과 공식행사를 갖

고 지난 22년간의 교류를 회고하면서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의미로 5월8일을 강소성의 날로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강소성 성장이 방문한 이날을 강소성의 날로 선포하고 양 지역간의 우호가 더욱 증진돼 교류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강소성 대표단의 공식방문을 통해 양 지역간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 될 전망이다"면서 "도와 강소성은 22년간 맺어온 자매결연의 끈끈한 관계와 한·중 경협단지라는 다리가 놓여 있어 두 지역이 손잡고 나갈 향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호남형 청년문화 리더양성 사업 추진

전문가 맞춤형 이론교육·실무 워크숍·현장 사례연구 전북대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6월부터 5개월간 진행

전북 지역문화 융성의 중심이 될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8일 전북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오는 6월부터 약 5개월간 호남형 청년문화 리더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마련됐으며,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가 맞춤형 이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연구 등 다양한 심화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2개월간의 현장실습 인턴십과 정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문화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도는 심화교육과정의 우수 교육생 중 일부를 선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문화리더 양성과정'도 적극 참여 할 예정이다.

'문화리더 양성과정'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 통섭 등 수준 높은 강의와 더불어, 지역문화사업의 기획·운영 실무 전부를 다루는 토론 워크숍, 해외현장교육 등 심화교육과정 이수자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문화 인력양성기관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력이 새로운 지역문화 융성의 선봉에 서서 '지역문화의 지평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북지역 유명 관광지 황금연휴 '특수' 누리

가족의 달인 5월의 두 번째 주말을 맞고 있는 8일 전북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유원지 등에는 황금연휴를 만끽하기 위한 관광객들과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황금연휴와 맞물려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누적관객 7만500여명이 전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전북지역 관광지는 연휴의 특수를 누렸다

10일간의 시네마 여행을 끝내고 지난 7일 폐막된 영화제에는 45개국의 장·단편 영화 211편이 상영돼 영화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영화제는 503회의 영화를 상영해 219회가 매진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영화제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그대로 전북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보며 황금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수만명의 나들이객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전주한지문화축제를 둘러보며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의 풍요로움에 찾아들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포함한 이번 황금연휴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전주동물원과 원주 대이수목원 등을 방문하며 가족애를 쌓았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전주동물원에는 6만여명, 대이수목원에는 3만5000여명이 방문하며 즐거운 연휴를 보냈다.

또 부안보실축제에는 3만4천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다양한 체험행사과 볼거리 등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담았다.

/정영수 기자



어린이날 대축제

지난 5일 전주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4회 어린이날 대축제에 송하진도지사 가 나들이 나온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 "2015년도 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8일 전북도는 2015년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3.8% 세율

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기한은 2016년 5월31일까지이며,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납부

하며, 방문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20%와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5월말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모

도, 220여억원 3개 사업·35개 바우처 서비스 지원

전북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다년간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격실주 중에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통합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앞서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 평가로부터 다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2015년 성과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국비(지특비)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서비스를 5월 중 추가 공모해 선정된 서비스에 대

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도 사업비만 220여억원(국비 74%, 도비 10%, 시군비 16%)에 달하는 이 사업은 현재 1만3,000여명에게 3개사업·35개 바우처를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인력 2,400여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반 복지사업과는 달리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고,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기본적인 생활보장 서비스를 벗어나서 일상생활지원, 인적자본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런 강점을 살려 앞으로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전북형 복지서비스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주간(주말),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정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문과 감성의 사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명상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치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한국음반인협회 전북회장
·한국스피치&리더쉽협회 대표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반인협회, (사)한국음반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